

윤형주 윤동주님께 바치는 노래 尹東柱さまにささげる歌

작사·작곡 윤형주

作詞・作曲 尹亨柱 (ユン・ヒョンジュ)

당신의 하늘은 무슨 빛이 었길래
당신의 바람은 어디로 불었길래

あなたの天は どんな色だったので
あなたの風は どこへ吹いたので

당신의 별들은 무엇을 말했길래
당신의 詩들이 이토록 숨을 쉬나요

あなたの星は 何を語ったので
あなたの詩たちは このように 息をするのでしょうか

밤새워 고통으로 새벽을 맞으며
그리움에 멎든 바람 고향으로 달려갈때

夜通し 苦しんで 夜明けを迎え
恋しさに傷ついた風が ふるさとに 駆けていくとき

당신은 먼하늘 차디찬 냉기속에
당신의 숨결을 거두어야 했나요...

あなたは遠い空 冷たい冷たい 空気の中で
あなたの息を 引き取らねばならなかったのですか....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했던 당신은
차라리 아름다운 영혼의 빛같이여라

死んでいく すべてのものを 愛したあなたは
むしろ 美しい魂の光であれ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왔던 당신은
차라리 차라리 아름다운 생명의 빛같이여라

木の葉に 起こる風にも 苦しんだあなたは
むしろ むしろ 美しいいのちの光であれ

당신의 땅...당신의 자리에
하늘이 나리네 별이 나리네...

あなたの地.... あなたの場所に
天が降る 星が降る....